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예배

흘려보낼 때 더 크게 채워집니다.

2026.2.1.

사도행전 9:26~31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녀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오늘은 '흘려보낼 때 더 크게 채워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사울, 그리고 교회의 선택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 사울의 회심과 그 이후의 여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마스쿠스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지만, 초대교회의 상황은 사울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까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덤볐던 사람아닙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소중한 지도자 스데반을 죽인 주범이라는 인식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마스쿠스 교회에 융화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은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는 '배신자'였고,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술인자'이자 '스파이'로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만나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만나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묵상했던 것처럼, '위로의 아들' 바녀바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울을 직접 데리고 가서 사도들

과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당시 바니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핵심 리더로 활약하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사울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담대히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주의자들의 증오가 극에 달해 그를 죽이려는 위협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들은 뚫으면 죽일 모의를 합니다. 미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미움이 커지면 없애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만큼 우리의 이성을 막아시키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30절입니다.

사도행전 9:30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저는 이 구절이 강력하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을 피신시키는 이 과정, 이것은 단순히 "어서 도망가라"고 등 떠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항구도시 가이사리까지는 100km가 넘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먼길을 예루살렘 신도들이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를 고향인 다소,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 타르수스로 보내기 위함이었죠. 지중해 인근에 위치한 타르수스는 고대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죠. 아마도 그들을 사울을 배에 태워 보낼 요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루살렘 신도들이 사울을 '보냈다'고 기록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정착시키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듭니다. 가이사리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의 경비, 사울을 태울 배삯, 그리고 빈털터리로 도망친 사울이 다소에서 정착할 초기 정착금까지... 이 모든 비용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위해 지갑을 열었고, 그를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훗날 세계선교의 장을 열었던 유럽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 선교 비용을 당시 앤티온 교회가 담당을 했죠. 그때 앤티온 교회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바니바죠. 그러고보니 바니바는 보이지 않는 뒤에서 묵묵히 놀라운 일을 일으킨 장본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그 선교 후원의 시초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교회의 헌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당시, 후원 받은 현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과 함께 로마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은 다시 되돌아온 셈이죠. 우리가 나누는 도움과 나눔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그것을 더욱 확고히 기록하죠.

사도행전 9:31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오늘 저는 30절의 이 '흘려보남'이 어떻게 31절의 '평안과 부흥'으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영적, 인문학적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돋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공포에 떨게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존경 받는 지도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인물이죠. 그런 인물을 사랑해야 한다고 아무 문제없이 여러분은 보듬어 주실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를 위해 나의 가진 것, 나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나요? 아니다 시피 사울이 변화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주의자들은 눈이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지도 몰라요. 본시 배신자는 기만 두지 않는 것이 인간의 성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감싸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를 위해 시간을 쓰고, 위험을 감수하며, 더 나아가 지갑까지 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이것은 명백한 '손해'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물질과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 그 투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훗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세운 유럽의 교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돋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부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꺼져가던 교회의 불꽃을 살려내죠. 예루살렘 교회의 작은 헌신과 후원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드리는 헌신은 결코 사라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은혜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부는 흘러야 증식된다. (순환의 법칙)

이 원리를 좀 더 실제적인 경제 논리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Money'도 있지만, 경제 용어로는 'Currency(통화)'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흐름'을 뜻하는 'Current'에서 왔습니다. 즉, 돈의 본질은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움켜쥐고 있으면 그 생명력을 잃습니다. 흘려보낼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여기에는 '진공의 법칙'(The Vacuum Law of Prosperity)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물리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무언가를 비워내면 우주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밀어 넣습니다. 옷장을 비워야 새 옷이 들어오고, 날숨을 뺏어야 새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피신시켰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31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9:31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

서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사용하고 그를 밖으로 내보내며 '비워냈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평안'과 '부흥'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부의 원리입니다. 움켜쥐면 내 손안의 것만 남지만, 손을 펴서 흘려보내면 세상의 것이 내 손을 거쳐갑니다.

※부자들의 마인드셋 (기브 앤 테이크)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부자들도 이 비밀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왓슨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 아담 그랜트(Adam Grant)는 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에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받기만 하는 테이커(Taker), 받은 만큼 주는 매처(Matcher), 그리고 조건 없이 주는 기버(Giver)입니다. 그의 연구 결과, 사회적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퍼주기만 하다 이용당한 '어리석은 기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최상위에서 성공을 거둔 그룹 역시 '기버(Giver)'들이었습니다. 현명하게 베푸는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도움으로써 강력한 신뢰와 평판을 얻고, 그것이 결국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어 더 큰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버'였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도왔기에, 사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고, 그 결과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구두쇠였지만, 53세에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우연히 "주는 기쁨"을 깨닫고 자선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의사는 그가 1년도 못 살 거라고 했지만, 기부를 시작한 뒤 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그는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록펠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버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흘려보내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풍요의 법칙

마지막으로, 이를 심리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금을 하거나 남을 돋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입니다. "이걸 주면 나는 부족해질 거야"라는 마음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핍 마인드(Scarcity Mindset)'라고 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난해"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어요.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시험을 못 볼거야. 이번 시험도 망칠거야'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결핍마인드죠. 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움켜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움켜잡고, 걱정에 숨어버리면 진짜로 그 두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는 파동이, 같은 파동의 현실을 끌어당긴다."

계속 "부족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면, 정말로 부족한 현실이 계속됩니다. 계속 '안 돼'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면 정말로 안 되는 일들만 내 앞에 펼쳐집니다.

반대로,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행위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미 충분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야."

이것은 '풍요 마인드(Abundance Mindset)'입니다. 내가 넉넉한 마음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 풍요의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기복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7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인색함을 심으면 궁핍이 나고, 후함을 심으면 풍요가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움 대신 '후원'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안'과 '부흥'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그러는 동안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앞의 사건과 뒤의 결과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31절의 놀라운 축복, 즉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가며 수가 많아지는 부흥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30절의 결단, 즉 원수였던 시물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지갑을 열어 기이사리와 다소까지 파송했던 그 '손해 보는 것 같은 현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은혜도 고이면 썩습니다. 물질도 움켜쥐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려보내면 더 큰 바다가 되어 돌아옵니다.

2026년 새해, 우리 공동체가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시간, 재능을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흘려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31절의 평안과 부흥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